

광주시청 육상 정혜림 '허들 무적'



정혜림

전국실업육상 100m허들 우승
부상 복귀 후 시즌 4번째 금메달
광주시청 금 4·은 3으로 마무리

'허들여왕' 정혜림(34·광주시청)이 올시즌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혜림은 9일 고성에서 열린 2021고성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여자일반부 100m허들 결승에서 13

초27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우승했다. 2위는 13초69의 조은주(포항시청), 3위는 13초95를 기록한 임예름(청양군청)이 차지했다.

정혜림은 올 시즌 최고 기록으로 이번 대회 정상에 오르는 등 올시즌에도 변함 없는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정혜림의 경쟁자는 자신뿐'이라는 육상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혜림은 지난 4월 제2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4×100m계주 금메달로 가볍게 시동을 걸었다. 당시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 부상 예방

을 위해 계주만 가볍게 뛰고 주종목인 허들은 나서지 않았다.

그는 부상을 떨쳐내고 지난달 메달 사냥에 나섰다.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100m허들에서 13초64로 우승한데 이어 제50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13초32), 제75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13초42)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청은 이날 끝난 고성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를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개로 마무리했다. 정혜

림(여자 100m허들), 김국영(남자 100m), 김덕현(멀리뛰기)과 남자 4×100m계주(김국영·여호수·아·김민준·강의빈)에서 금메달을, 한정미(여자 200·400m)와 이준(남자 400m)이 각각 은메달을 기록했다.

전국 최강 육상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시청은 오는 21-23일 여수에서 열리는 제32회 전국실업단체육상경기대회에 출전, 메달 사냥에 나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여자농구 전국대회 준우승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여자농구부가 '제37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3전 전승을 달리던 광주대는 지난 9일 상주삼내체육관에서 열린 공동 1위 단국대(3승)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53-55로 아쉽게 패배했다.

이번 대회 여대부는 광주대를 비롯해 단국대, 울산대, 수원대, 연세대 등 5팀이 풀리그로 치러 우승 팀을 가렸다.

광주대 양지원(2년)과 김원지(2년)는 마지막 경

기에서 각각 19점과 16점으로 활약했다. 유야비(1년)도 5득점 5어시스트, 5가로체커로 팀에 기여했다.

3쿼터를 33-55로 뒤진 광주대는 4쿼터 시작과 동시에 치열한 수비와 빠른 공격으로 2점차까지 추격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국선경 광주대 감독은 "왕중왕전 때는 더 좋은 경기력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성적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37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에 참가한 광주대 농구부 선수들.

<광주대 제공>



광주체고 양궁부. 왼쪽부터 채진서, 이정우, 강민재, 유인선, 김종명 코치.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광주체고·순천여고 대통령기 양궁 단체전 준우승

광주체고와 순천여고가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 남자·여자 고등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는 지난 9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충북체고에게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채진서, 이정우, 강민재, 유인선이 팀을 이끈 광주체고는 8강에서 전남체고를 세트 스코어 6-0, 6강에서 경기체고를 세트 스코어 5-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유인선은 거리별 경기 7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고 김종명 코치는 "코로나19로 지친 선수들에게 자신감이 가장 절실했다"며 "학교 수업을 병행하며 쉬는 날 없이 훈련에만 전념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린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남수현, 김민정, 손지원, 손예령이 호흡을 맞춘 순천여고는 결승에서 충북체고에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사·도종합 순위에서는 광주가 득점합계 70점으로 서울(89점), 충북(85.5점)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한편, 대회 현장에서는 '양궁을 사랑하는 모임'

(이하 양사모)의 봉사활동이 주목을 받았다.

광주지역 양궁선수 학부모들의 모임인 '양사모' 회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제32회 전국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 3~9일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기간 경기장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식과 음료를 무료 제공, 대회 성공개최에 기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여고 양궁부. 왼쪽부터 남수현, 김민정, 송효은 코치, 장연경 감독, 손지원, 손예령.

바티, Wimbleton 품다

플리스코바 꺾고 여자 단식 정상에... 메이저 대회 두번째 우승

애슬리 바티(1위·호주)가 Wimbleton 테니스 대회(총상금 3501만6000파운드·약 549억9000만원)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바티는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Wimbleton의 올 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카롤리나 플리스코바(13위·체코)를 2-1(6-3 6-7(4-7) 6-3)로 제압했다.

2019년 프랑스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단식 정상에 오른 바티는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7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26억 9000만원이다.

호주 선수인 바티가 여자 단식을 제패한 것은 1980년 이븐 굴라공 이후 올해 바티가 41년 만이다.

2019년 9월부터 단식 세계 1위 자리를 지킨 바티는 이날 플리스코바를 맞아 초반부터 강공을 펼쳤다.

경기 시작 후 게임스코어 3-0으로 달아나는 동안 플리스코바에게 한 포인트도 내주지 않았고, 네 번째 게임에서도 0-30으로 앞서며 경기 시작 후 14포인트를 독식했다.

2017년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지만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이 없어 '큰 경기에 약하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플리스코바는 이날도 1세트 게임스코어 0-4로 끌려가며 맥없는 모습을 보였다.

플리스코바는 게임스코어 1-5에서 연달아 2게임을 따내 3-5로 추격했으나 바티가 이어진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키면서 불과 28분 만에 첫 세트를 선취했다.

1세트 워너 수가 12-2일 정도로 바티가 플리스코바를 압도했다.

2세트는 타이브레이크 끝에 플리스코바가 반격에 성공했다.

플리스코바는 2세트 초반 1-3으로 끌려갔고, 게임스코어 5-5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뺏기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2세트부터 높아진 첫 서브 성공률을 앞세워 승부를 3세트로 끌고 갔다.



Wimbleton 테니스 대회에서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한 바티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3세트에서는 다시 1세트와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됐다. 바티가 플리스코바의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3-0으로 달아나 승기를 잡았다.

플리스코바는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어이없는 발리 실수로 브레이크를 헌납, 0-2가 되면서 2세트 승리 기운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날 서브 에이스 7-6, 공격 성공 횟수 30-27, 실책 29-32 등 경기 기록에서 바티가 근소한 우위를 보였고, 결국 1시간 55분 만에 바티의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 우승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블랙 위도우
2관	블랙 위도우
3관	카이엇 플레이스 2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4관	블랙 위도우, 이번엔 잘 되겠지
5관	블랙 위도우,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6관	블랙 위도우
9관	발신제한
7관 씨네커튼	발신제한, 미드나이트
8관 씨네커튼	크루엘라, 카이엇 플레이스 2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
김민지 첼로 리사이틀
일시: 2021. 07. 13.(화)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즐거움
문화산책

블랙 위도우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7월 7일 IMAX 개봉